

ARETE

PNU MAGAZINE | 2026 February 창간호



프롤로그

'대학의 미래와 역할: 지혜가 자라나는 숲'
부산대학교 융합교육센터 실장

인사이드 융합교육센터

융합인재, 산학 협력으로
눈부신 성과를 꽃피우다

포커스 융합교육센터

융합교육의 개념과 교육방법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Cover Story

전통의 80년, 혁신의 중심 부산대학교

시대를 이끈 80년의 자부심으로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부산대학교의 미래이다.

발행일	2026.02월
발행처	부산대학교 융합교육센터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장전동) 대학본부 202호 융합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s://con.pusan.ac.kr
전화	051-510-7253
총괄기획 및 편집	채희문팀장, 김서현연구원
디자인제작	소나기크리에이티브 주식회사

2026 창간호

CONTENTS

발간사

교육혁신본부장 발간사	04
융합교육센터장 발간사	06

프롤로그

융합교육센터 실장 편집사	08
---------------	----

인사이드 융합교육센터

융합교육센터 소개	11
-----------	----

포커스 융합교육센터

다중전공 연구	15
3LAYER-BPF	25
ABC융합캡스톤디자인	37
다중전공 교육과정	40



글로벌 교육의 실현 지역을 기반으로 세계를 향한 혁신

교육혁신본부 융합교육센터의 『Arete: PNU Convergence 2025 Magazine』 첫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Arete(아레테)』 ‘탁월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바탕으로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 변화 속에서 방향을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류의 발전은 언제나 창조와 변화의 역사였습니다. 인간이 두 발로 걸던 시대에서 말을 타기 시작했을 때, ‘견기’는 일상이 되었고, 마차가 등장하자 그것은 곧 자동차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렇듯 새로운 지식의 탄생은 늘 기존 질서의 변화를 전제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오늘날의 대학은 이러한 거대한 전환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대학은 더 이상 지식을 보관하는 공간이 아니라, 변화를 발견하고 사회적 혁신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문이 나아가야 할 사회의 방향,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끄는 힘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사유해야 합니다.

혁신, 변화의 흐름 위에서

혁신은 곧 변화와 함께 존재합니다. 대학은 인구 감소와 재정 위기, 기후 위기 등 급격한 사회 변화와 위기 상황 속에서 단순히 생존을 모색하는 것을 넘어 변화의 흐름을 타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변화의 흐름을 학문으로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흐름 속에 직접 뛰어들어 경험하며 적응 전략과 대응 역량을 체득하는 교육 과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지식을 현실에 연결하고, 변화의 현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교육은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조직의 혁신과 문화의 힘은 개인의 창의성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조직의 체계적 과정과 문화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혁신이 완성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Arete: PNU Convergence 2025 Magazine』의 창간은 융합교육센터가 기존 역량을 심화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며,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기회를 발굴하는 조직적 발판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연구-산업-학문-지역사회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구조 속에서 지속 가능한 혁신 전략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부산대학교 교육혁신본부장 김효정

경계를 넘어, 배움의 길로 서로를 잇다

오늘날 세상은 한가지 학문의 언어로 간단하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복잡성과 예측불가능성이 높아진 현대 사회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복잡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이 인문학적 사유를 요청하고, 예술이 과학과 결합하고, 새로운 융복합 학문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학 교육 역시 오랫동안 이어져 온 학문 정체성을 고수하고 일방적인 지식 전수 역할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식은 강의실과 캠퍼스를 넘어 살아있는 현장과 만나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새로운 길을 내는 것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부산대학교 융합교육센터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식과 지식의 연결, 지식과 삶의 연결을 통한 새로운 학습 생태계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전공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학문이 만나 자연스럽게 교차하는 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는 힘을 키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학문의 언어를 다른 학문의 언어로 수용하고 번역하는 역량, 타 분야의 가치와 장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윤리 역시 기를 수 있습니다.

부산대학교는 2024년 7월 1일 융합교육센터를 신설하고 융합교육 개발과 운영을 위한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전공 간 융합·연계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부터 산업과 지식의 자연스러운 융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개발 등을 통해, 학문, 산업, 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학문과 전공, 학과에 대한 고정관념과 규제를 혁파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학의 변화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통해 학생들은 강의실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으로 가져가 적용해 보고, 기업과 지역사회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대학과 함께 해결책을 궁리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런 선순환 구조 속에서 지식 습득은 새로운 지식 학습으로 자연스럽게 확대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새로운 교육 과정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서사의 시작

『ARETE: PNU Convergence 2025 Magazine』 첫 호는 융합교육센터 신설 이후 지금까지 달려온 과정과 성과를 공유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성과 공유 차원에 그치지 않고 교수, 학생, 산업에 신선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그것이 실제 연구와 교육, 산업의 변화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부산대학교의 우수한 지식이 캠퍼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캠퍼스 밖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그래서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위기를 돌파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융합교육센터는 대학과 지역, 산업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융합교육센터장 신지은

대학의 미래와 역할

지혜가 자라나는 숲

오늘날 우리는 로봇을 하나의 기계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제 로봇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인간의 사유와 감각이 녹아든 '또 하나의 존재'로 인식됩니다.

과학의 시대 이전부터 인간은 도구를 만들어 자신을 확장해 왔습니다. 망치로 손의 한계를 넘어섰고, 조각상으로 인간의 형상을 재현했으며, 그 형상에 움직임을 부여하며 '인간을 닮은 기계'를 꿈꾸었습니다. 예술과 기술은 그렇게 오래전부터 손을 잡고, 인간의 능력을 '도구화'하면서도 그 안에 인간의 정신을 새겨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인공지능(AI)은 그 모든 과거의 시도를 넘어섰습니다. 단순히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라 사고하고 학습하며 소통하는 존재, 즉 인간의 사고를 모방하는 '휴머노이드적 지성(현대 로봇의 3대 핵심인 동작, 인지, 의사소통 능력)'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 변화는 인류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의 배움과 교육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20세기의 교육이 지식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21세기의 교육은 지식을 공유하고 재창조하는 과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식은 더 이상 교실 안의 전유물이 아니며,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오픈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배우고, 가르치며, 연결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대학은 단순한 지식의 공급자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태계'를 설계하는 '촉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학문은 산업과 연결되고, 산업은 지역과 연결되며 그 순환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배움과 성장이 태어납니다. 기계가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는 시대에, 대학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여전히 분명합니다. 대학은 더 이상 '지식을 쌓는 탑'이 아니라, '지혜가 자라나는 숲'이 되어야 합니다.

『Arete: PNU Convergence 2025 Magazine』은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는 배움의 이야기들이 모여서 탄생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지역사회와 산학 그리고 대학을 이어 더욱 넓게 자라나는 숲이 되길 바랍니다.





융합인재, 산학 협력으로 눈부신 성과를 꽃피우다

융합교육은 전공의 깊이를 바탕으로 학습이 경계를 넘나들게 설계해, 현장의 문제를 창의적 탐색-문제정의-분석-협업-실행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학습 흐름으로 전환하는 일이다.

융합인재를 향한 사회적 기대는 크지만, 그 의미를 몇 개의 단어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명 강연과 성공 사례가 제시하는 역량 목록은 유용한 참고점이 될 수 있으나, 때로는 특정 장면만 확대해 보여주는 '선택적 진실'에 머물기도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유행어를 늘리는 일이 아니라, 학문의 본질에 기대어 더 많은 현장과 삶의 데이터를 경험과 연구로 축적하며,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융합의 기준을 정교하게 다시 쓰는 작업입니다.

대학은 전공의 경계를 넘어 지식이 이동하고 연결되는 '지식의 교차로'로서, 학습이 자연스럽게 교차·확장될 수 있도록 교육의 다양성과 구조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RISE와 글로벌대학 정책 흐름이 강조하는 핵심 역시 단순한 지원 확대가 아닙니다. 지역의 과제를 교육·연구·산학협력으로 엮고, 그 성과가 다시 교육으로 환류되며 다음 혁신을 촉발하는 순환형 생태계를 구축하라는 요구입니다. 결국 대학의 경쟁력은 '무엇을 가르치느냐'만이 아니라, '지역과 세계의 문제를 어떻게 학습으로 전환하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융합인재의 역량은 보다 선명해집니다. 낯선 영역을 탐색하며 가능성을 발견하는 창의적 탐색력, 사회 구조와 복잡한 이슈를 구조화해 핵심을 도출하는 문제정의·분석력, 서로 다른 지식과 기술을 결합해 해법을 설계하는 통합적 설계력,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업해 실행을 완성하는 조정·소통 능력입니다. 융합은 특정 분야가 '만나는 순간'에 그치지 않습니다. 학문의 모든 영역에서 아이디어가 분석으로 이어지고, 연결이 실행으로 완주되는 흐름이 끊기지 않을 때—융합인재는 비로소 교육의 현장에서 실제로 만들어집니다.

ARETE



인사이드 융합교육센터



융합교육센터 소개

“융합교육센터는 융합교육 운영활성과 성과관리-산학친화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PNU의 미래 교육 생태계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기관이다.”

1 융합교육 성과관리 체계 구축

“데이터 기반 융합교육 혁신을 실현하다.”

- 교육·연구·산학 데이터를 통합한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
- 다중전공 이수 현황·성과 분석 기반 관리
- 피드백 중심의 지속적 교육 품질 고도화



2 산학친화형 프로그램 개발 및 환류 체계 구축

“산업 현장과 교육을 연결해, 즉시 활용 가능한 역량을 디자인하다.”

- 단계별 3LAYER-BPF교과목 개발 연구
- 기업 참여형 융합교과·캡스톤 디자인·현장실습 고도화
- 산업체 요구 기반 교육 프로그램 설계



3 창업성장 교육과정 개발

“아이디어가 성장하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는 실전형 교육 생태계.”

- 창업교육과정 고도화를 위한 연구과제
- ABC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산학·창업·실전 프로젝트를 연결한 'One-Stream 창업교육'



2025학년도 PNU 융합교육센터 주요 성과



다중전공 활성화를 위한 융합교육생태계 조성



다중전공 아이디어 공모전



다중전공(융합·연계전공) 개발 및 확장을 위한 연구과제 실시



창업교육 고도화를 위한 연구과제



산학친화형 교과목 개발 및 고도화



ABC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 개발 및 고도화

융합인재의 핵심 역량



창의적 탐색



문제 정의와 분석



선택적 결합



협업과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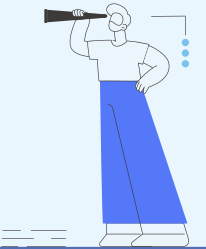
지산학 융합인재가 불러온 지역사회 변화의 이글다

부산대학교 융합교육센터는 개발·연계·융합전공을 통해 지역과 산업의 현장을 교육 안으로 끌어들이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융합인재를 길러내고 있다. 학생들은 전공의 경계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대학의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실천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배움의 폭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산업체와 지역사회로 이어지며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다중전공·연계전공 기반의 학생 프로젝트와 지역기업 공동연구는 지역 현안 해결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융합·연계전공 개발 아이디어 공모전(학생편) 소개

융합교육의 개념과 교육방법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2025년 융합·연계전공 개발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창의성과 시대적 감각을 갖춘 25개 팀이 참여해, 대학 교육 혁신의 가능성을 한층 넓혔다. 참여팀들은 전공의 경계를 '확장'하는 수준을 넘어, 문제와 현장 중심으로 학습을 재구성하고 전공간 역량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미래형 커리큘럼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곧, 변화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대학교육이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과정이었으며, 학과간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전공 모델을 발굴·확산하고자 기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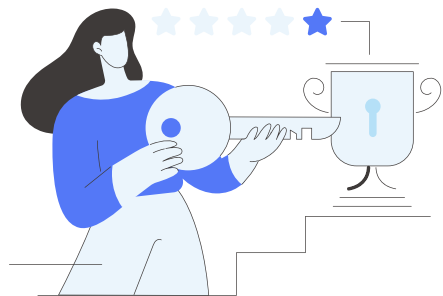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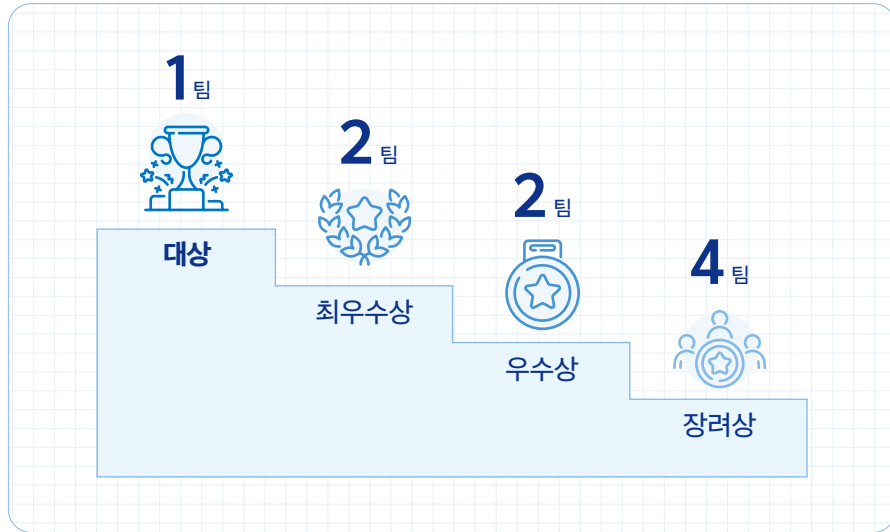
ARETE

II

포커스 융합교육센터



총 25개의 아이디어



다양한 학과와 전공의 융합, 지역사회와 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한 전공 모델,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을 담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새로운 미래 교육의 길을 제시하였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향후 정식 교육과정 설계에 반영되어 학제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새로운 모델로 발전 하고자 한다.



2025 융합·연계전공 개발 아이디어 공모전



2025 융합연계전공 개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수상자 인터뷰

스마트항만 AI 융합전공: 부산의 미래를 디자인하다 (융합전공)



산업공학과 석박통합과정 박O은



학생 Proposal

「스마트 항만 AI 융합전공」 기술·도메인·실습을 한 축으로 묶어 부산형 인재 모델을 제안합니다. 이 모델은 스마트 항만 AI 융합전공은 항만물류시스템과 AI·IoT·빅데이터 등 첨단 IT 기술을 결합한 학제간 융합교육과정입니다. 공과대학(조선해양·산업공학)·자연과학대학(해양학)·정보기술대학(정보컴퓨터공학)·경제통상대학(무역학)의 역량을 모아, 학생들이 항만 운영 프로세스와 ICT 기술을 통합적으로 학습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교육과정은 기초이론(스마트항만·항만물류)과 기술기초(AI·데이터분석·IoT)를 바탕으로, 지능항만 시스템·해양데이터 분석·항만 시뮬레이터 실습 등 핵심 교과와 산학 연계 캡스톤/PBL 팀프로젝트로 확장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이론+실무 역량, 융합적 문제해결력, 협업 기반 창의적 사고를 갖춘 스마트항만 전문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기술을 넘어, 향만을 이해하는 AI 인재”

Q. 수상 소감이 궁금합니다.

A. 부족한 제안서임에도 ‘스마트 향만 AI 융합전공’이 수상으로 이어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산업과 인공지능의 융합 가능성을 교육과정으로 구체화해보고 싶었는데, 그 과정 자체가 연구자로서 큰 보람이었습니다. 특히 SCSC에서 수행해온 스마트 향만 연계 AI 연구 경험이 제안서의 토대가 되었고, 이 제안이 학문과 산업의 경계를 허무는 작은 실마리가 되길 바랍니다.

Q. 어떤 계기로 공모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A. 저는 산업공학과에서 스마트 공급망에 기여하는 AI 기술을 개발하며, 산업 현장의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해결하는 연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향만·물류 분야에서는 ‘기술 적용’보다 먼저 현장의 흐름과 시스템 전반을 이해하고 조율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가 절실하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어떤 교육이 이런 인재를 키워낼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겼고, 그 질문을 현실적인 커리큘럼으로 옮겨보려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Q. 부산 ‘스마트향만’의 변화가 교육과정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부산은 세계적 해양물류 중심지로 부산항을 보유하고 있고, 2023년에는 국내 최초 완전 자동화 컨테이너 부두(신항 7부두) 준공 등 전환 속도가 빠릅니다. 부산항만공사(BPA)도 2019년부터 로드맵을 세우고 2030년까지 AI·IoT 기반 자율형 향만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전환은 곧 고용 구조 변화를 동반합니다. 전통 인력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ICT를 이해하고 운영 할 청년 인재 수요는 커지는데, 정착 지역 내 학부 수준의 향만×ICT 융합 교육 플랫폼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Q. 제안한 전공의 핵심 설계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기술 나열’이 아니라 도메인 지식과 ICT를 균형 있게 결합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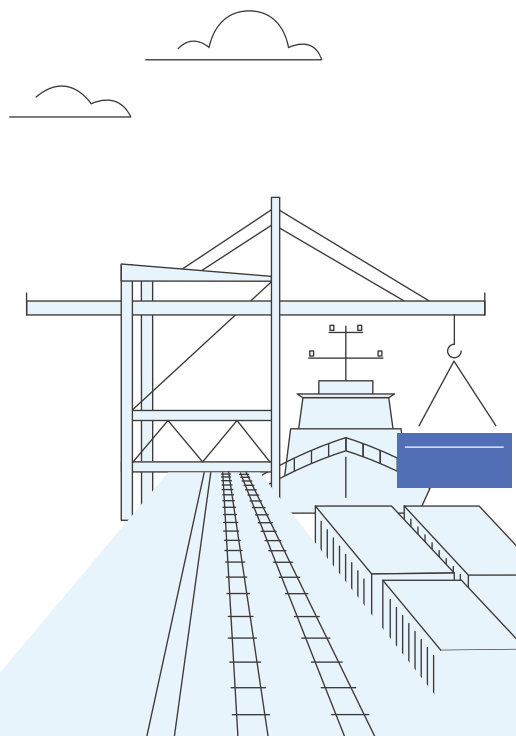
현장 시나리오 기반 캡스톤: 컨테이너 혼잡도 예측, 무인 하역장비 운영 최적화, 물류 흐름 시각화 등 실습 중심 교과: IoT·AI·빅데이터 분석을 산업현장 적용 수준으로 설계

향만 시뮬레이터 활용 + 산업체 연계 프로젝트: 실제 데이터·운영 맥락을 ‘체감’하도록 구성

또한 산업공학, 조선해양, 해양학, 정보컴퓨터공학, 무역학 등 다전공 연계로 교육의 현실성과 지속가능성, 산업체 연계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했습니다.



2025 융합·연계전공 개발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
2025 융합·연계전공 개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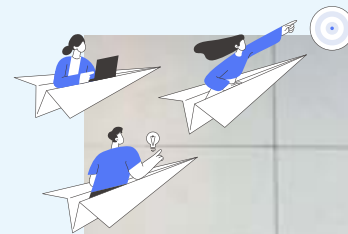


수상자 소감

한문문화콘텐츠 융합전공 (융합전공)



한문학과 윤O현



학생 Proposal

한문문화콘텐츠 융합전공은 한문학의 깊이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술문화 콘텐츠와 디지털 미디어를 접목해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창의적 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실용형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전공입니다. 부산대학교의 한문학 전통을 계승하면서 콘텐츠 산업과 연결해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수자는 고전 기반 K-컬처 문화기획, 한문학 콘텐츠(교육·문화·예술) 개발, 디지털 인문 콘텐츠 제작 등 국내 외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전공은 ①한문문화 해석·자료분석(문헌·고전텍스트 기반) ②예술·콘텐츠 기획 및 제작(스토리텔링·영상·공연·시각예술) ③디지털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활용(SNS·미디어비평·유통전략)이라는 3대 핵심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한문학과·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예술문화 영상학과가 참여하고 외부 전문가와 연계해 산학협력기관(부산문화재단 등) 프로젝트, 캡스톤디자인·실습 중심 수업, 콘텐츠 발표회·전시·영상 제작 등 성과 창출을 강화하며, 교육과정은 기초→해석→응용→실습의 위계로 운영됩니다.

처음 최우수상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가장 컸지만, 동시에 “이 아이디어를 정말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라는 책임감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한문학과에 입학한 뒤부터 저는 늘 진로와 취업을 고민해왔고, 그 고민이 이번 결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스스로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한문학과는 취업이 어렵다”, “요즘 시대에 한문이 필요하냐”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고전을 좋아하는 마음은 분명했지만, 한문학과만으로 사회와 연결되는 길이 좁다는 현실도 체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문학의 깊이를 지키면서도,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함께 갖추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번 수상은 그 질문이 헛된 고민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해준 순간이었습니다.

공모전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1학년 2학기에 들은 ‘한문 문화의 이해’ 수업이었습니다. 『온달전』, 『항우봉기』 같은 작품을 해석하며 고전이 지루한 텍스트가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콘텐츠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업 마지막에 교수님께서 “고전은 다른 매체로 확장될 때 더 넓은 사람들과 만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말이 제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텍스트 속 한문학을 영상, 전시, 디지털 콘텐츠로 옮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분명해졌고, 공모전 공고를 보자마자 “지금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는 ‘감’으로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먼저 학과의 취업-진학 현황을 확인하며 현실을 정확히 봤고, 동시에 콘텐츠 산업과 문화 분야의 흐름, 다른 대학의 융합전공 사례도 찾아보았습니다. 또 제가 제안하려는 방향이 실제 교육과정으로 작동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할지 고민하며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와 예술문화영상학과의 교육 요소도 함께 조사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배우면 어디에 쓸 수 있는가”가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디어 구상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둔 기준은 ‘실용성’이었습니다. 한문학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한문학이 오늘의 사회에서 실제로 쓰이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① 한문화 해석·자료 분석 ② 예술·콘텐츠 기획·제작 ③ 디지털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활용이라는 세 축을 세우고, 세 학과가 서로의 전문성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도록 설계했습니다. 기초-해석-응용-실습으로 이어지는 단계형 커리큘럼, 캡스톤디자인과 현장실습, 포트폴리오 기반 평가, 외부 전문가 평가까지 담은 이유도, 학생들이 ‘결과물’로 역량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이번 공모전은 단순한 수상이 아니라, 전공에 대한 애정과 불안 사이에서 계속 고민해온 시간을 ‘가능성’으로 바꿔준 경험이었습니다. 한문학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학문이 아니라, 시대의 언어와 만나면 새로운 가치와 진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디어가 실제 교육과정으로 이어져, 저처럼 전통 학문을 전공하며 길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전공을 버리지 않고도 시대와 연결될 수 있다”는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 융합·연계전공 개발 아이디어 공모전 홍보

융합·연계전공 개발과제 확장연구 성과

융합 역량을 체계화한 다중전공

(융합·연계전공 개발 확장연구 성과)

1 건설안전공학융합전공

복합재난의 상시화, 대형·복잡화된 건설 프로젝트, 중대재해 규제 강화로 설계-시공-운영 전 단계에서 시스템 안전과 법적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관리할 전문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를 위해 BIM·디지털트윈·IoT·AI 기반 예측·모니터링 역량을 바탕으로 설계·구조·시공·환경·데이터를 통합하는 건설안전공학 융합전공이 필요하며, 산학연 연계로 다양한 취업 트랙과 예방 중심 안전문화 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장문제 해결형 전문인력의 양성 실행형 융합인재

설계-시공-운영 건축물 전 생애주기의 시스템 안전 및 정량적 리스크 관리 구현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건설안전 전문성



실전문제 해결능력



데이터 기반 사고



현장 소통 능력



전문적 실무능력 및 윤리의식
학문과 산업 및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필수 전문 역량 배양



건설분야 안전관리 능력 강화
기후변화, 친환경, ESG 등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이슈 해결



융복합 사고기반 인재 양성
BIM, IoT, AI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문제 해결 능력

2 지능형로봇 AI융합전공

지능형로봇 AI융합전공은 지각-추론-제어 페루프를 통합 설계·운영할 수 있는 로봇 시스템 엔지니어를 양성한다. 멀티센서 지각과 경량 AI, 계획, RTOS 기반 제어, 전기·전자 융합을 E2E로 연결해 트레이드오프 판단과 실환경 강인성을 키우고, ROS2/RTOS-MLOps-디지털트윈 기반 소프트웨어 정의 플랫폼으로 개발-배포-운영 품질을 내재화한다. 산학캡스톤-PoC와 SSE(안전·보안·윤리)를 결합해 현장 수요와 교육 공백을 동시에 메우는 전공이다

소프트웨어 지향 지능형 로봇 교육 연구 고도화

안전·보안·윤리 내재화된 AIxRobotics 융합인재 양성

인재상 (3C)

- System Integrator** SENSE→LEARN→ACT 전 주기를 설계·구현하는 통합 설계자
- Software-Defined Robotist** 표준 플랫폼(ROS 등)과 엣지 추론으로 지능을 배포·운영하는 개발자
- Solution Maker** 현장 데이터로 가치를 창출하는 산학연 협업형 문제해결가

핵심 가치 (4C)

- Convergence** 전기·전자·컴퓨터의 공통 언어(제어·신호/데이터-최적화)로 학제 간 융합
- Code-centric** ROS/RTOS, 엣지AI, MLOps,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중심 설계
- Challenge-driven** 지역·산업 수요 과제를 캡스톤/현장실습으로 연결하는 문제해결 지향
- Compliance** 기능안전·사이버보안·AI 윤리를 교육 전 과정에 내재화

참여 학과

- 전기전자공학부 전기공학전공
- 전기전자공학부 전자공학전공
- 정보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 정보컴퓨터공학부 인공지능전공

3 디지털서비스무역융합전공

무역x관광컨벤션x영어교육을 결합해, 글로벌 서비스·무역 현장의 문제를 언어교육·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해결하는 실무·교육 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영어교육학의 교수설계·평가·수업운영 역량을 무역·관광 도메인 지식과 실무 커뮤니케이션에 접목해 문서·협상·프로세스 수행의 생산성, 고객경험(CX) 개선, 직무교육·온보딩 학습성과를 동시에 높이는 학습디자이너형 비즈니스 커뮤니케이터 모델을 구체화했다. DX·크로스보더 이커머스·MICE/관광 고도화·지속가능성 강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언어·데이터·콘텐츠 통합 역량을 핵심 축으로 두고, 무역학부 주관의 다학제 공동운영 체계와 캡스톤·현장실습·산학프로젝트 중심 교육을 마련했으며, 전시·컨벤션 기반 B2B 세일즈 및 MICE 운영(이동·숙박·식음료·관광 연계) 역량까지 교육과정의 핵심 과제로 포함했다.

글로벌 현장형 융합전공 개발

융합전공을 통한 글로벌 서비스·무역 인재 양성

- 1 역량 결합**
 - 영어교육
 - 무역
 - 관광 결합
- 2 핵심 축 설정**
 - 언어
 - 데이터
 - 콘텐츠 통합
- 3 다학제 협력**
 - 참여 학과 공동운영 체제
- 4 문제해결형 교육**
 - 캡스톤
 - 현장실습
 - 산학프로젝트 중심

현장 문제

언어교육과 커뮤니케이션 부족

실무·교육 복합형 인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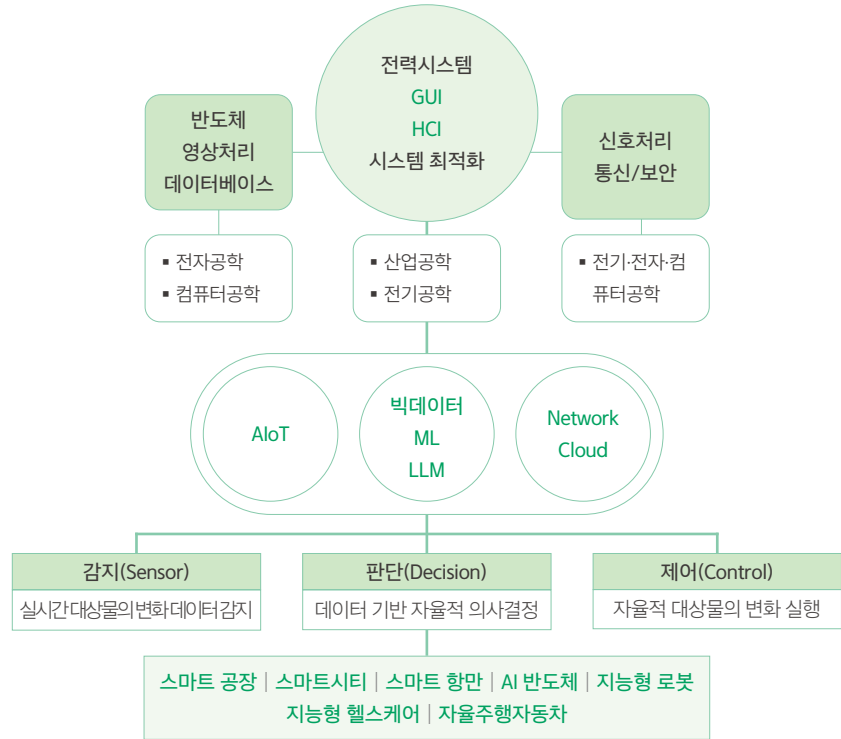
글로벌 서비스·무역 산업 문제 해결

4 산업인공지능융합전공

산업공학과·전기공학과·전자공학과·정보컴퓨터공학부가 참여해 반도체·통신·제어·신호처리·보안·전력 등 공학 기반기술과 산업공학의 데이터·최적화·시뮬레이션 방법론을 AI로 통합하여 산업의 AI 전환을 주도할 전문가를 양성한다. 인공지능수학·머신러닝수학 등 수학·공학 기초 위에 머신러닝·딥러닝·생성모델·강화학습과 알고리즘 역량을 구축하고, 임베디드·IoT·네트워킹으로 물리 산업시스템과 AI를 연결하며, 스마트제조·스마트서비스·스마트제어 등 현장 밀착 교과를 통해 산업 문제 해결과 운영 최적화까지 수행하는 AI 시스템 설계자(Algorithm+H/W+Network+Process)를 길러내는 전공이다.

산업인공지능융합전공 전문가 양성

산업인공지능 교육·연구 플랫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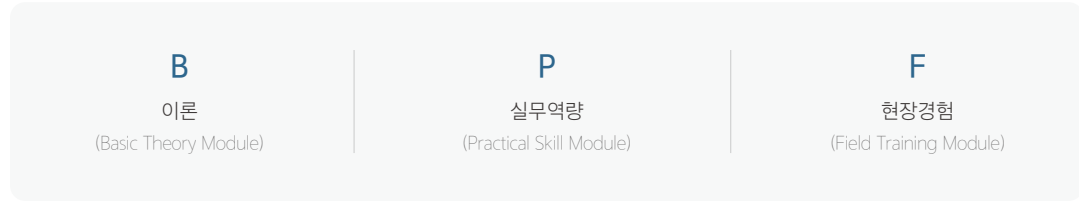
3LAYER-BPF 소개

3LAYER-BPF 순환 학습 시스템, 융합 교육 모델로 지산학과 미래를 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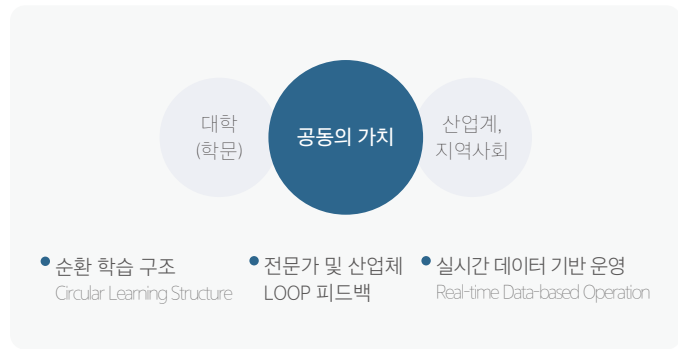
3LAYER -BPF는 이론(Basic Theory)-실무역량(Practical Skill)-현장경험(Field Training)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 반복·심화되는 3단계 순환 모듈로 설계된 융합교육 모델이다. 학문-산업-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학습이 '축적'에 그치지 않고 '전환'으로 이어지도록 구조화한다.

이 모델의 핵심은 현장경험(F)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다시 이론으로 환류시키는 순환 학습 시스템에 있다.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와 데이터가 이론을 재구성하고, 재구성된 이론이 실무 설계와 수행을 고도화하며, 그 결과가 다시 현장 검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통해 현장 적합성과 교육의 완성도를 동시에 끌어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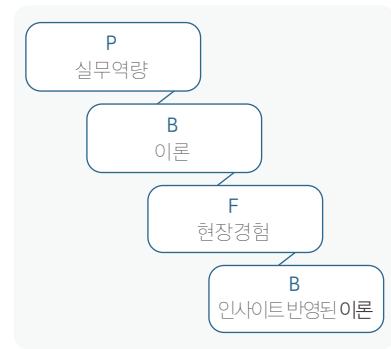
3LAYER-BPF



WIN-WIN 성과



프로세스



3LAYER-BPF는 융합 학습 능력을 강화시키는 데에도 효과적인 교육 모델로 손꼽히는 학습 시스템이다. PBL(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문제 해결 중심 접근과 TBL(팀 기반 학습)의 협업 역량 강화를 통해 학습자가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현장의 피드백이나 성과 지표(KPI) 등을 LMS, 시뮬레이션, IoT 센서 데이터 등과 연동하여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모니터링 체계도 내재화했다.

무엇보다 3LAYER-BPF는 대학과 산업,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고 평가까지 연결되는 거버넌스 모델이라는 점에서 Win-Win 성과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산학이 한데 모여 공동의 가치를 형성하고 정책 기여로 확장되는 등 3LAYER-BPF는 앞으로도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핵심 축이 될 것이다.



3LAYER-BPF 산학융합교육 교과목 개발 공모

3LAYER-BPF 연구 성과

» 1기 참여 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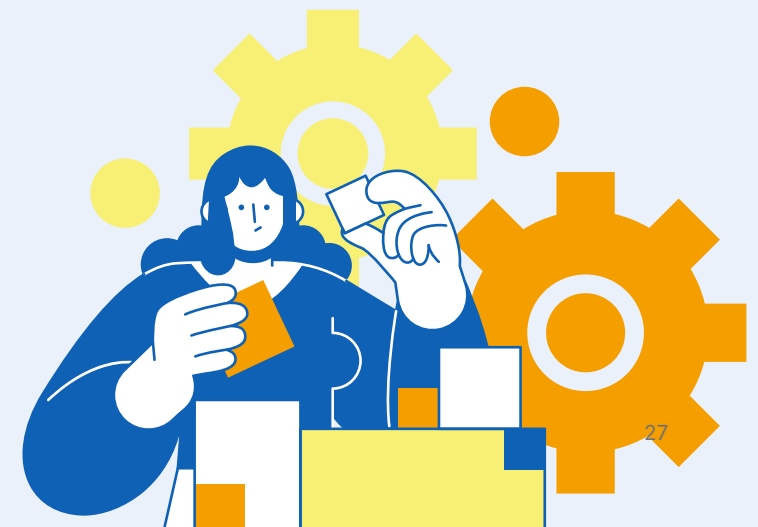
연번	유형	산학범위	산업체 연계	교과목명	학과명
1	유형1 (단일전공)	부산캠퍼스 (금융)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관리 캡스톤 디자인	경영학과
2	유형1 (단일전공)	부산캠퍼스(K-컬처)	툰헤드, 국제신문	지역사회 콘텐츠 개발	디자인학과

» 2기 참여 학과

연번	유형	산학범위	산업체 연계	교과목명	학과명
1	유형1 (단일전공)	부산캠퍼스 (에너지, 환경)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연구원	에너지-환경-경제 실습	경제학부
2	유형2 (융복합)	부산캠퍼스 (K-컬처, 라이프스타일)	벡스코,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 마켓 5.0: 디지털 무역과 컨벤션 전략	무역학부, 관광컨벤션학과

» 3기 참여 학과

연번	유형	산학범위	산업체 연계	교과목명	학과명
1	유형1 (단일전공)	부산캠퍼스 (부산 산업체)	성현회계법인 부산본부, 부산지방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 프로젝트 랩	경영학과
2	유형2 (융복합)	부산캠퍼스 (지역사회)	지역사회 (국립생태원, 부산환경공단, 부산시청)	에코데이터 사이언스 공공빅데이터 기반 지역 건강성 분석	미생물학과
3	유형3 (전공 융복합)	부산캠퍼스 (산업체)	(재)네이버 커넥트	산학공감 AI+X 프로젝트	AI융합교육원





지속가능한 대학-산학 win-win 성과

산학협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협력이 곧 '성과'로 이어지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번 성과보고서는 BPF 산학 교육의 후속 지원을 통해 대학과 산업체가 서로의 요구(Needs)를 정확히 읽고, 각자가 가진 자원(Resources)을 전략적으로 연결하며, 함께 가치(Value)를 만들어내는 Win-Win 협력 모델을 제시합니다. 즉, 단발성 교류를 넘어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질적 성과를 축적하고, 그 성과가 다시 교육과 협력으로 환류되는 선순환의 틀을 구체적으로 연결하였다.



현장을 교실로 옮긴 '자산관리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개발 및 개설

자산관리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은 개발·개설한 지상현교수연구팀은 이론 중심 교육을 넘어, 기업의 실제 문제를 PBL·캡스톤·현장 프로젝트로 해결하도록 설계된 대표적 산학교육 우수 사례다. 대학은 학생들이 데이터 분석·디지털 역량·ESG 이해 등 산업 수요에 맞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을 고도화하고, 산업체는 입사 직후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문제해결력과 데이터 활용력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는 구조로 맞물린다. 특히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정책·규정·프로젝트를 반영한 맞춤형 과제 설계가 가능해지면서, 교육의 '현장 적합성'이 뚜렷하게 강화된다.

이 모델의 실행력은 자원의 결합에서 나온다. 대학은 전공 교수진과 학생 집단, 캡스톤-PBL 지도 경험, Excel·Python 등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한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론-실습-현장(3Layer) 구조의 커리큘럼을 설계·운영한다. 산업체인 KAMCO(캠코)는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 실제 사례와 데이터, 그리고 현직 멘토의 피드백·QA·현장 의견 제공을 통해 교육을 '현장형 학습'으로 완성한다. 과제 또한 자산관리·금융·공공·ESG 등 실무 이슈를 그대로 교육에 이식할 수 있어, 학습 성과가 곧바로 실질 결과물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지속가능한 산학 네트워크를 '구조'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경영학과 지상현 교수의 참여를 중심으로, KAMCO(캠코) 등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산학 생태계를 확장했고, 이를 통해 연구와 프로그램이 일회성 협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협력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특정 기업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지역 산업체와 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방향성 역시 이 교과목의 강점이다.

성과도 분명하다. 대학은 기업 피드백을 통해 커리큘럼을 현실화하고 학생 역량·취업 성과를 끌어올리며, 산업체는 검증된 인재 풀을 확보해 채용 및 교육 비용을 줄이고 학생 프로젝트 기반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다. 결국 이 교과목은 '교육 혁신-인재 확보-사회적 책임(ESG·지역 기여)'을 동시에 달성하는 Win-Win 산학협력의 실행 모델로 자리매김한다.



캠코-부산대 연구협력 프로그램 현장 방문회
캠코-부산대 연구협력 프로그램 성과발표 세미나1
캠코-부산대 연구협력 프로그램 성과발표 세미나2



부산 동래시장 탐방
부산 성북시장 탐방

대학과 지역사회를 잇는 WIN-WIN 성과 콘텐츠

부산대학교 BPF 산학교육 윤기현교수 연구팀은 부산 지역 전통시장을 무대로 지역 기반 콘텐츠 제작과 디자인 실무 프로세스를 진행했다. 지역 조사부터 콘텐츠 기획, 디자인·스토리텔링 제안까지 도출하며, 성북시장 레트로 공간 만화벽화 재능기부 작업, 캐릭터 로고 UI 12종을 학생들이 직접 제작하였다. [P27.28.29. UI캐릭터로그]



부산캠퍼스 K-컬처·디자인학과가 만든 '지역사회 콘텐츠' 교과목 개설

지역의 현장 문제를 교육의 장으로 끌어오는 산학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번 지역사회 콘텐츠 개발 교과목을 개발한 윤기현교수 연구팀은 부산캠퍼스 K-컬처·디자인학과가 중심이 되어 기획·개발한 산학교육 과목으로, 지역사회 연계를 기반으로 한 실습형 교육을 정규 교과 안에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학생들은 현장 중심의 콘텐츠 기획·제작을 수행하며, 이론·컨셉 중심 수업의 한계를 넘어 '현장 과제-학습 설계-성과물 제작'이 이어지는 실질적 산학협력 모델을 경험한다. 산업체(지역사회) 역시 분명한 과제를 안고 있다.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시각화하려면 전문적 디자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장에는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청년 인력과 연결된 지속 가능한 지역 콘텐츠 개발이 요구되고, 도시재생·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각 콘텐츠와 홍보 자료 또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대학의 교육 수요와 지역의 현장 수요가 맞닿는 지점에서, 산학교육은 '협력'이 아니라 '성과'로 완성되어야 한다.

이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은 이미 양측에 존재한다. 대학은 K-컬처·디자인학과와 전공 교원과 교육 인프라를 기반으로 PBL·TBL형 프로젝트 운영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BK21(지역 스토리텔링 콘텐츠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등에서 축적한 연구·교육 노하우와 지역 연계 네트워크, 학생 참여형 제작 역량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지역은 전통시장·마을·상권 등 실제 현장과 과제, 상인·주민·전문가가 축적한 현장 경험, 지자체·유관기관으로 확장 가능한 협업 환경이라는 강점을 갖는다.

무엇보다 이 교과목은 '구상'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성과를 완성해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부산 동구 성북시장 웹툰 체험관을 지역사회 연계 거점으로 삼아 수업을 운영하고, 전문가 자문과 현장 멘토링을 통해 기획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부산 동래시장 현장 수업을 진행하며 시장 기반 콘텐츠 개발의 맥락을 확장했고, 대구 서문시장 '타마방' 사례까지 비교·탐색하여 지역 상권 콘텐츠의 적용 가능성을 넓혔다. 그 결과 윤기현교수 연구팀과 학생들이 직접 완성한 성과 콘텐츠 제작까지 마무리하며, 지역 현장과 교육이 연결되는 '안성형 산학교육'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었다.

이처럼 부산캠퍼스 K-컬처·디자인학과와 '지역사회 콘텐츠 개발' 교과목은 학생에게는 실무역량과 포트폴리오를, 지역에는 콘텐츠 경쟁력과 홍보 자산을 남기는 Win-Win 모델을 구현한다. 교육·연구·지역기여가 다시 교육으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며, 산학교육이 지속가능해지는 조건을 '현장 기반 성과'로 증명하고 있다.



부산 동구 성북시장 웹툰체험관 방문
부산 동구 성북시장 현장 수업 운영

글로벌 시장을 교실로, 무역의 현장을 배우다



무역학과 '글로벌 마켓 5.5' 교과목

부산대학교 무역학과 2기 3LAYER-BPF 산학융합교육 연구팀은, 급변하는 세계 무역 환경에 대응할 실전형 무역 교과목 '글로벌 마켓 5.5'를 개발했다. 이 교과목의 목표는 분명하다. 학생이 '글로벌 시장'을 직접 다루며, 현장 중심 문제해결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글로벌 마켓 5.5'는 이론 수업에 머물지 않는다. 글로벌 거래 구조 이해 → 시장조사 → 수출입 품목 선정 → 진출 전략 설계까지, 무역 업무의 핵심 흐름을 프로젝트로 설계했다. 즉, 학생이 무역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무역을 설계하고 실행해보는' 수업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뚜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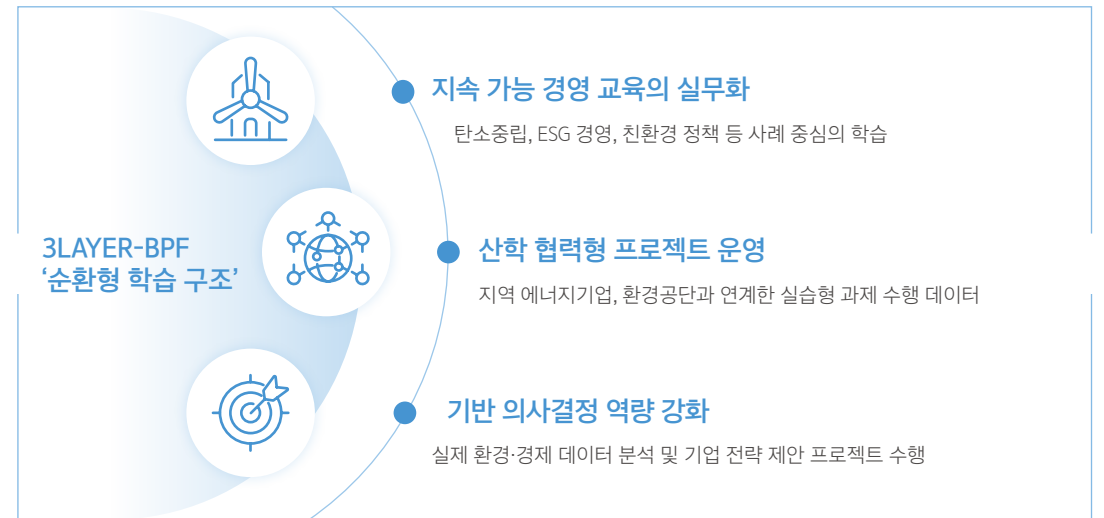
본 교과목 개발 연구는 「글로벌 마켓 5.5」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구조·무역 실무·해외마케팅·디지털 무역 플랫폼을 아우르는 핵심 개념 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실제 교육과정으로 구현하기 위한 설계·검증형 성과를 도출했다. 특히 연구팀은 국가별 시장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수출입 품목 선정-진출 전략 기획-성과물 산출까지 이어지는 프로젝트 구조를 설계하고, K-컬처,라이프 스타일을 지역 무역협회, 기업 멘토 네트워크의 자문을 통해 현장 적합성을 고도화했다. 연구 결과로는 시장분석 보고서 템플릿, 무역협상 시뮬레이션 모듈, 글로벌 마케팅 캠페인 제안서 프레임, 현지 기업 사례 분석 가이드, 모의 무역전시회(온라인 전시 포함) 콘텐츠 구성안 등 수업 적용이 가능한 구체적 산출물이 구축되었다. 또한 '3LAYER-BPF 글로벌 무역페스티벌' 운영안을 통해 우수 프로젝트 발표 및 산업체 공유 체계를 마련하며, 본 모델이 이론-실무-현장 연계형 무역교육으로 확장 가능성을 입증했다. 향후 연구는 무역데이터 분석 고도화, 디지털 수출마케팅, ESG 국제협상 교육 등 으로 범위를 넓혀,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무역교육 모델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에너지를 배우고 이해하며 지속 가능한 세상을 설계하다



경영학과 '에너지·환경·경제 실습' 교과목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2기 3LAYER-BPF 산학융합교육 연구팀은 에너지 전환 시대에 요구되는 실무 역량과 지속가능 관점의 사고력을 체계적으로 기르기 위해 교과목 연구·개발을 추진하였다. 본 교과목은 에너지 소비-환경정책-기업 ESG 경영의 균형을 실제 사례 기반으로 분석·탐구하도록 설계되어, 이론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의사결정에 적용 가능한 관점과 분석틀을 갖추게 한다. 특히 현장 데이터 활용, 분석·시뮬레이션 기반 실습, 팀 프로젝트(친환경 비즈니스 제안 등)를 통해 학습 결과가 보고서·전략 제안서 형태의 산출물로 연결되도록 구성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정책과 경영을 동시에 읽는 통합적 시야, 근거 기반 문제해결력, 협업 역량을 함께 강화할 수 있는 것이 이 교과목의 강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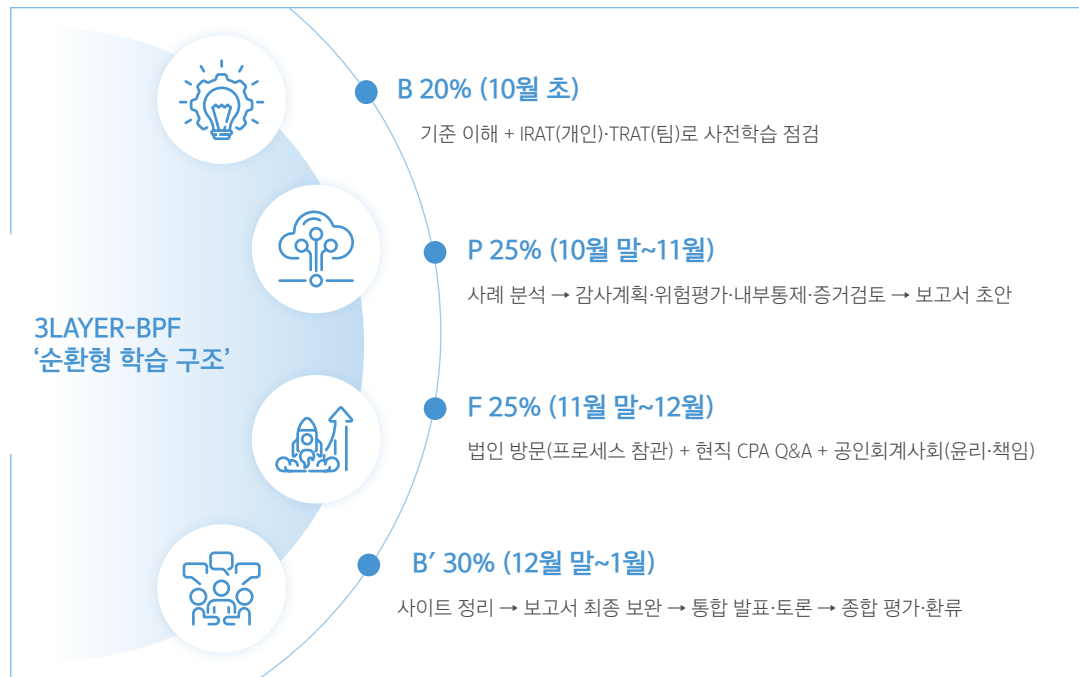
본 연구는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BPF(이론-실무-현장) 교육모델을 적용한 교과목 개발연구로, 탄소중립과 ESG라는 시대적 과제를 교육과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설계·검증 중심의 성과를 도출했다. 연구팀은 에너지정책·환경경제학·지속가능경영의 핵심 개념을 기반으로,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과 기업 ESG 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학습 구조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전략을 수립하는 수업 모형을 체계화했다. 교과 운영 설계는 산업 현장 자료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시뮬레이션 기반 실습 모듈, '친환경 비즈니스 제안'과 같은 팀 프로젝트 운영안, 그리고 지역 에너지 공기업·환경기관 연계 멘토링 및 현장형 문제해결 워크숍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기관 대상 제안 프리젠테이션 등 실무 적용 경로를 포함해, 일부 산출물은 기관 내부 검토 자료로 활용 가능한 수준까지 구체화되었다. 본 교과목 개발연구는 BPF가 역량 교육을 넘어 사회문제 해결형 교육 플랫폼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부산대학교가 지향하는 '산학연 공동 설계 기반 Glocal Innovation Ecosystem'의 실천 모델이자 BPF 루프의 진화 방향을 제시한다.

감사기준을 '암기'에서 '판단'으로 바꾸며 실제 감사팀처럼 배우다



경영학과 '회계감사 프로젝트 랩(Audit Project Lab)' 교과목 개발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3기 「회계감사 프로젝트 랩(Audit Project Lab)」은 이론-실무-현장을 단절적으로 배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실제 감사 수행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해결하는 산학융합형 교과목이다. 3LAYER-BPF 산학융합교육 모델을 적용하여 B(Basic Theory): ISA-신외부감사법·내부회계관리제도 기반 기초이론, P(Practical Skill): 회계법인 제공 실제 감사사례 기반 팀 프로젝트, F(Field Training): 회계법인·공인회계사회 방문 중심 현장 경험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마지막에 B'(Insight Basic Theory)로 성과를 다시 이론으로 환류시키는 순환학습 구조로 운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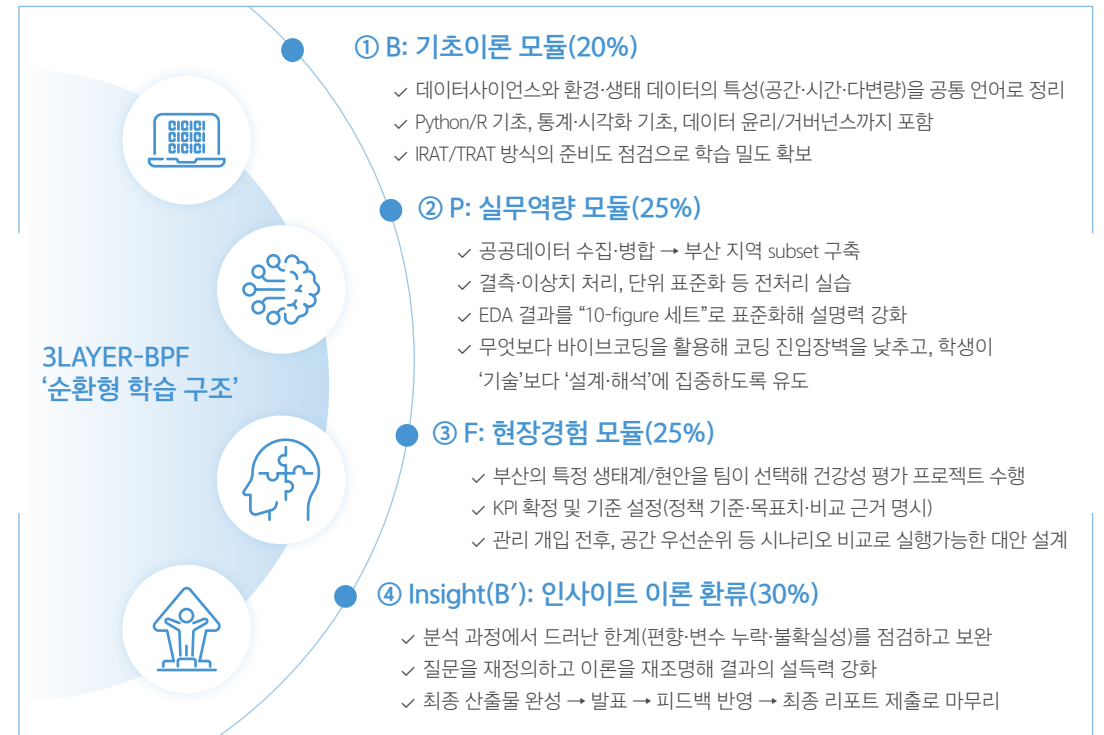
본 교과목 개발연구는 회계감사 교육을 실제 감사팀의 업무 흐름에 맞춰 재구성하여, 학습자가 팀 단위로 감사계획-위험평가-내부통제 평가-증거 판단-감사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도록 설계한 것이 핵심 성과다. 연구팀은 이 과정을 통해 수업이 단순 이론 전달이나 단발성 실습에 머무르지 않고, 실무 적합성, 협업 기반 문제해결력, 전문직 윤리·책임 인식을 통합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 목표와 활동 구조를 정교화했다. 특히 실사례 기반 프로젝트, 현장 체험 요소, 그리고 반복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LOOP 피드백 구조를 교과 설계에 내재화함으로써, 회계감사 교육을 '한 번 해보는 실습'이 아니라 성과가 누적되는 선순환 학습 체계로 전환시키는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현장 기준과 교육 설계를 연결한 교과목 개발의 성과로서,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융합형 회계감사 교육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데이터로 진단하고, 정책으로 제안하다



미생물학과 '에코데이터 사이언스: 공공빅데이터 기반 지역 건강성 분석' 교과목

환경·생태 분야는 관측·모니터링 데이터가 폭증했지만, '데이터가 존재해도 통찰로 연결하지 못하는' 간극이 반복되어 왔다. 특히 부산은 해안-하천-도심-산지가 근거리에서 맞물리는 복합 도시생태 시스템으로, 대기·수질·생물다양성·도시열섬 등 다양한 이슈가 동시에 나타난다. 이 수업은 바로 그 부산의 데이터를 교육의 현장으로 끌어와, 학생들이 문제정의-지표(KPI) 설정-분석 설계-해석-정책 제안까지 한 번에 완주하도록 설계했다.



'에코데이터 사이언스' 교과목 개발은 지역의 복합 환경 이슈를 단순한 '수업 주제'로 소비하지 않고, 실제로 풀어야 할 '해결 과제'로 교육과정 안에 재배치한 설계 연구다. 연구팀은 학습자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분석 결과를 정책 대안으로 구체화하는 흐름을 경험하도록 수업 구조와 산출물 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했다. 특히 본 교과목은 기술 습득 중심 수업을 넘어 근거 기반 사고(Evidence-based thinking), 재현 가능한 분석 절차, 지역사회로 환류되는 결과물을 교육 목표로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데이터 교육을 '방법'이 아니라 '책임 있는 실천'으로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지역 문제 해결형 데이터 교육모델로서의 확장 가능성과, 산학·지역 연계 기반의 교육 혁신 방향을 동시에 제시하는 교과목 개발 성과다.

AI로 지역을 읽고, 해법을 설계하다



소프트웨어융합교육원 산학공감 AI+X 프로젝트

AI 활용 역량은 모든 분야의 기본 역량이 되었지만, 대학의 AI 교육은 종종 이론 중심이거나 도구 사용법에 머무르기 쉬운 한계를 보완하고자 기획되었다. 연구팀은 현장이 요구하는 핵심이 기술 자체가 아니라 문제 정의-질문 설계-검증-개선으로 이어지는 사고 과정임에 주목하여, 이를 수업의 학습목표와 활동 구조로 정교하게 설계했다. 특히 본 교과목은 부산의 지역 현안(소상공인·생활문제 등)과 부산 특화산업(관광·해양·금융·스마트물류)의 맥락을 교육과정에 반영해, 학습자가 AI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AI로 실행 가능한 해결안을 설계하도록 교과 운영 모형을 구축했다. 즉, 현장 맥락 기반 과제 설계와 결과물 중심 평가 체계를 통해 즉시 적용 가능한 AI 실천 역량을 길러주는 교과목 개발이다.



본 프로그램 개발은 (재)네이버커넥트가 커리큘럼 설계-온라인 교육 운영-멘토링-최종 평가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교육의 품질과 현장 적합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프로그램은 최신 AI 활용 사례를 학습하는 단계에 더해 기업 탐방과 전문가 네트워킹을 운영 요소로 포함함으로써, 참여자가 교육에서 얻은 지식을 현장 맥락에 연결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향후 부산 지역 공기업·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확장해, 프로젝트 결과가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업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교육-현장-지역 기여' 선순환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연한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융합형 실무 인재 양성



ABC융합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 개발 공모전

ABC융합캡스톤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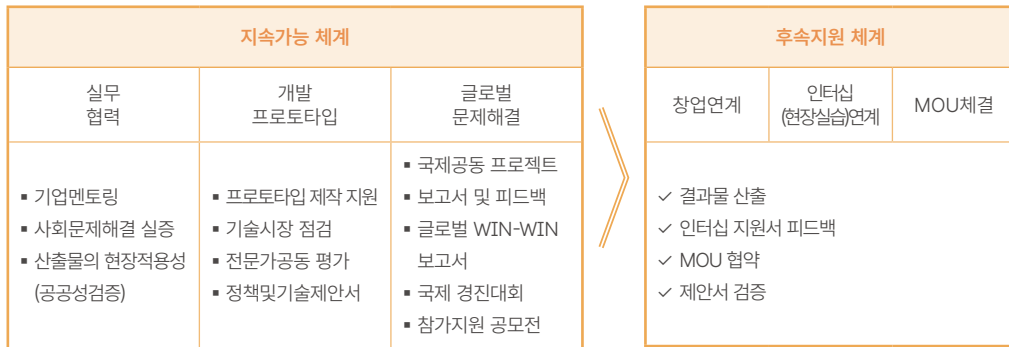
ABC융합캡스톤디자인은 지역사회와 산업계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공과 협업하는 융합교육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의 일환이다. 이는 곧 단순한 과제 수행을 넘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천적 문제 해결력과 실행 역량을 함양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ABC융합캡스톤디자인은 A(Advanced)-B(Basic)-C(Cooperative) 순환 구조를 통해 현장의 복합적 문제를 분석하고 설계하여 검증하는 문제해결 중심의 융합 교육 모델이다. A(Advanced)는 산업·기술·정책·사회 등 실제 현장의 동향을 반영한 다양한 시장요구를 심층 분석하는 단계이다. B(Basic)는 사용자 분석, 문제 원인 구조화, 해결 가능성 등을 통해 문제를 탐색하고 설계한다. C(Cooperative)는 실제 환경에서 현장 협력을 개발하고 실행·검증하는 실무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ABC융합캡스톤디자인 교육을 통해 기술 검증 및 창업, 고도화 프로젝트 등으로 확장할 수 있다.

ABC융합캡스톤디자인 유형

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 명칭	기업연계형 (기술 및 기업 등 실험 제시)	지역사회연계형 (지역문제 해결)	글로벌형 (글로벌 이슈)
통합 유형	다학제형/ 학제간 융합형/ 학과 간 연계 중 1개 선택		
디자인유형	학생 창작형, 기업문제, 기술기반 1개 선택		



ABC융합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 참여학과

연번	프로그램명 (교과목명)	영역	주관학과	참여학과
1	AI융합 지속가능 패션디자이너 브랜드 캡스톤디자인	전공	의류학과	경제학부
2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캡스톤 디자인	일반선택	경제학부	무역학부, 경영학과, 영어교육과

산학협력으로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한 부산형 실전 캡스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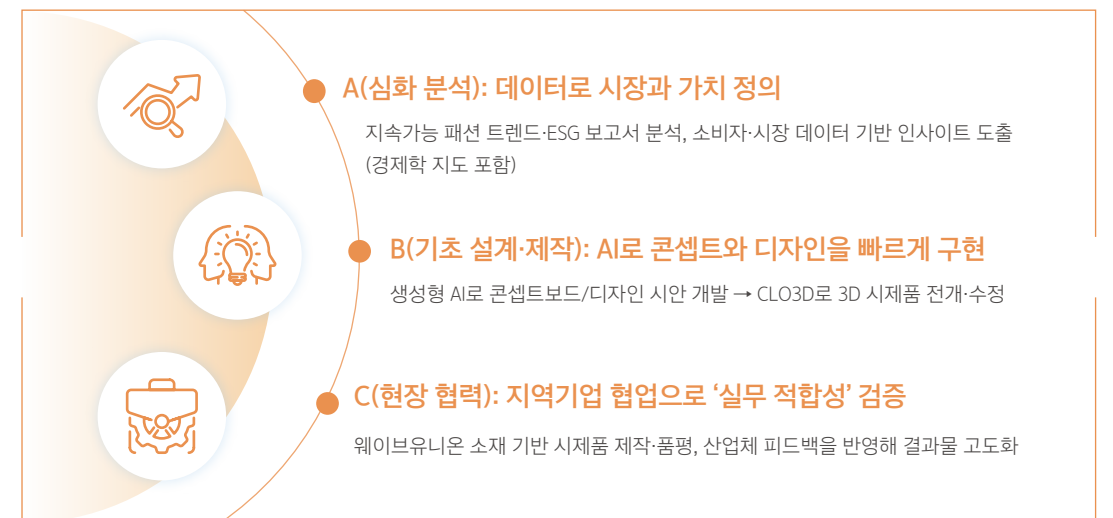


AI융합 지속가능 패션디자이너 브랜드 캡스톤디자인(전공) 교과목

지속가능성(ESG)과 디지털 전환(DX)이 동시에 가속화되는 패션산업에서, 대학 교육은 더 이상 '작품 제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시장과 데이터 분석에서 출발해 디자인 실험, 소재·생산 검증, 브랜딩과 피칭까지—실제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교육 안으로 끌어오는 프로그램형 캡스톤 교과목이 요구된다. 이에 AI 융합 지속가능 패션디자이너 브랜드 캡스톤디자인 개발팀은 의류학(디자인)과 경제학(시장·ESG분석)의 팀팅칭, 지역 소재기업 웨이브유니온(WaveUnion)과의 산학협력을 결합한 교과목 운영 모델을 설계했다. 본 프로그램은 생성형 AI와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해 콘셉트 시각화-지속가능 소재 기반 시제품 개발-Demo Day 피칭으로 이어지는 '브랜드 실전 역량' 경로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ABC 캡스톤' 흐름으로 설계된 학습 여정

분석(시장·ESG) → 설계(AI 디자인) → 협업(산학 검증) → 피칭(Demo Day)**으로 이어지는 완결형 구조(ABC 흐름)로 설계되었다. 즉, 이 교과목 개발은 패션을 '제작 과제'가 아니라 사업·기술·지속가능 전략이 통합된 브랜드 프로젝트로 재정의하며, 지역 산업과 연결된 부산형 지속가능 패션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확장 가능한 모델을 제시한다.



이 프로그램 설계는 중간 발표-산업체 멘토 피드백-수정·보완-품평-리허설-최종 피칭의 구조 속에서, 학습의 산출물은 반복적으로 고도화된다. 결과물은 '한 번 만들어 제출하는 과제'가 아니라, 피드백을 반영해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프로젝트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디자인의 기준을 시장성, 윤리성, 지속가능성이라는 현실의 기준을 설계한다. 즉 미적 완성도를 넘어, 근거와 전략으로 뒷받침되는 설득 가능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역량을 갖추는 학습 모델이 된다.

1. 융합전공



융합전공은 2개 이상의 학과(부) 또는 전공의 소속교원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새로운 전공을 구성한다. 선발인원 및 기준, 운영방법 등은 주관학과와 참여학과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형태로 이수 가능하다. (※ 단, 예술대학(예술문화영상학과 제외) 소속 학생은 융합전공 이수 불가)

■ 부산대학교 학생지원시스템(<https://onestop.pusan.ac.kr>) - 학적 메뉴에서 세부정보 확인 가능

2026. 2. 1. 기준
*: 주관학과

연번	융합전공명	계열	참여학과	세부정보
1	지능형헬스사이언스융합전공	자연과학	수학과* 미래에너지전공	-
2	핀테크융합전공	인문사회	경영학과* 정보컴퓨터공학부	https://fintech.pusan.ac.kr/fintech/
3	EES융합전공	공학	미래에너지전공* 광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재료공학부 유기소재시스템공학과	https://ees.pusan.ac.kr/ees/
4	미래자동차융합전공	공학	기계공학부* 전기공학과 재료공학부 나노소재첨단제조전공 광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미래형자동차기술융합혁신인재양성사업단 https://pnu-futurecar.ac.kr
5	디지털헬스케어융합전공	공학	의생명융합공학부* 광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기계공학부 간호학과	차세대바이오헬스산업혁신인재양성사업단 https://biohealth.pusan.ac.kr
6	반도체융합전공	공학	반도체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전기공학전공, 재료공학부, 고분자공학과, 유기소재시스템공학과, 기계공학부, 화공생명환경공학부, 화공생명공학전공, 미래에너지전공, 나노소재첨단제조전공, 광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정보컴퓨터공학부, 물리학과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 https://pnusemi.pusan.ac.kr
7	이차전지융합전공	공학	미래에너지전공* 재료공학부	이차전지혁신융합대학사업단 https://2battery.pusan.ac.kr

연번	융합전공명	계열	참여학과	세부정보
8	스마트국제물류융합전공	경영학	BITS공유대학 국립해양대학교(주관대학)	
9	스마트항만물류융합전공	공학	BITS공유대학 국립해양대학교(주관대학)	부산공유대학(BITS) https://www.bbbits.ac.kr/
10	스마트해양모빌리티융합전공	공학	BITS공유대학 부산대학교(주관대학)	
11	클린에너지전공	공학	BITS공유대학 동아대학교(주관대학)	
12	의료인공지능융합전공	자연과학	의생명융합공학부* 의예과, 의학과, 간호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동물생명자원학과	의생명특화총괄본부 의생명.바이오 인재양성실
13	그린바이오융합전공	자연과학	동물생명자원학과* 생명환경화학과, 바이오산업기계공학과, 식품공학과	동물생명자원학과 사무실 (055-350-5510)
14	지식재산융합전공	공학	미래에너지전공* 광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재료공학부	IP중점대학사업단 https://ipc.pusan.ac.kr/
15	임상시험코디네이터(CRC) 융합전공	자연	간호학과* 동물생명자원학과, 의생명융합공학부, 식품영양학과	간호학과 사무실 (051-510-8305)
16	미래모빌리티전공	공학	BITS공유대학 부산대학교(주관대학)	
17	해양미래산업전공	공학	BITS공유대학 국립해양대학교(주관대학)	부산공유대학(BITS) https://www.bbbits.ac.kr/
18	AI혁신전공	공학	BITS공유대학 국립부경대학교(주관대학)	
19	DX융합전공	공학	자유전공학부* 전남대, 홍익대, 광운대, 국립공주대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 (HUSS) (051-510-1589)



2. 연계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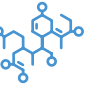
연계전공은 2개 이상의 학과(부)와 전공이 연계하여 새로운 전공을 구성하며, 2학년부턴 이수 가능하다. 연계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교육과정표 교과목 상에 연계전공 과목으로 표시된 교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연계전공을 개설하지 않은 학과의 학생의 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수전공 이수형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 부산대학교 학생지원시스템(<https://onestop.pusan.ac.kr>) - 학적 - 전공지원신청안내 - 연계전공 메뉴에서 세부정보 확인 가능

2026. 2.1 기준

연번	연계전공명	참여학과
1	의생명과학전공	생명과학과 미생물학과 분자생물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2	통합사회전공	일반사회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윤리교육과 사학과
3	통합과학전공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4	빅데이터연계전공	정보컴퓨터공학부 산업공학과
5	산업수학소프트웨어연계전공	수학과 정보컴퓨터공학부
6	에너지IoT연계전공	정보컴퓨터공학부 전기공학과
7	임베디드소프트웨어연계전공	정보컴퓨터공학부 전자공학과
8	산업AI연계전공	산업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컴퓨터공학부
9	차량용AI반도체연계전공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10	탄소중립바이오기술연계전공	바이오회계학과, 동물생명자원학과, 바이오산업기계공학과,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생명환경화학학과, 식물생명과학과

3. 마이크로디그리



마이크로디그리는 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타전공의 세부전공 분야를 최소의 이수부담으로 경험할 수 있다. 학과(부)나 전공에서 소규모 특성화 교과목 이수과정을 설계하여 구성하며, 최대 3개까지 이수 가능하다.

마이크로디그리의 명칭, 이수학점 등은 해당 단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의 검토 후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산대학교 학생지원시스템(<https://onestop.pusan.ac.kr>) - 학적 - 전공지원신청안내 - 소단위전공 - 마이크로디그리 메뉴에서 세부정보 확인 가능

2026. 2. 1. 기준

연번	학과(부)전공	명칭	이수학점
1	EES융합전공	EES융합전공마이크로디그리	[선택1] EES융합전공 15학점 [선택2] EES융합전공 12학점+에너지기초과목 또는 에너지신산업사업단에서 인정하는 에너지 관련 교과목 3학점
2	미래에너지전공	이차전지마이크로디그리	이차전지 트랙 교과목 중 15학점
3	미래자동차융합전공	미래자동차마이크로디그리	미래자동차 융합전공 18학점 (6학점 이상 심화전공 교과목에서 이수)
4		친환경차마이크로디그리	미래자동차 융합전공 18학점 (6학점 이상 심화전공 교과목에서 이수 + 친환경차 전문 과목 3학점 이상 이수)
5		자율주행차마이크로디그리	미래자동차 융합전공 18학점 (6학점 이상 심화전공 교과목에서 이수 + 자율주행차 전문 과목 3학점 이상 이수)
6		미래자동차설계생산마이크로디그리	미래자동차 융합전공 18학점 (6학점 이상 심화전공 교과목에서 이수 + 미래차 설계생산 전문 과목 3학점 이상 이수)
7	디지털헬스케어융합전공	디지털헬스케어융합전공마이크로디그리	디지털헬스케어융합전공 18학점(전공필수 7학점 포함)
8	스마트국제물류융합전공	스마트국제물류마이크로디그리	스마트국제물류 융합전공 교과목 4과목(12학점) + 소속 학과 인정 교과목 1과목(3학점)
9	스마트항만물류융합전공	스마트항만물류마이크로디그리	스마트항만물류 융합전공 교과목 4과목(12학점) + 소속 학과 인정 교과목 1과목(3학점)
10	스마트해양모빌리티융합전공	스마트해양모빌리티마이크로디그리	스마트해양모빌리티 융합전공 교과목 4과목(12학점) + 소속 학과 인정 교과목 1과목(3학점)
11	클린에너지전공	클린에너지마이크로디그리	클린에너지전공 12학점
12	의료인공지능융합전공	의료인공지능융합전공마이크로디그리	의료인공지능융합전공 15학점 이상 (전공필수 6학점 이상)
13	그린바이오융합전공	그린바이오융합전공마이크로디그리	그린바이오융합전공 15학점 이상 (전공필수 9학점 포함)
14	지식재산융합전공	지식재산융합전공마이크로디그리	지식재산융합전공 15학점 (전공필수 6학점 포함)

4. 트랙



연번	학과(부)·전공	명칭	이수학점	
15	이차전지융합전공	이차전지융합마이크로디그리	이차전지융합전공 15학점	
16		이차전지소재분석마이크로디그리	이차전지융합전공 15학점 (이차전지소재분석 필수 과목 9학점 이수 포함)	
17		이차전지제조공정마이크로디그리	이차전지융합전공 15학점 (이차전지제조공정 필수 과목 9학점 이수 포함)	
18		이차전지자원순환마이크로디그리	이차전지융합전공 15학점 (이차전지자원순환 필수 과목 9학점 이수 포함)	
19		이차전지장비시스템마이크로디그리	이차전지융합전공 15학점 (이차전지장비시스템 필수 과목 9학점 이수 포함)	
20		이차전지진단안전마이크로디그리	이차전지융합전공 15학점 (이차전지진단안전 필수 과목 9학점 이수 포함)	
21		이차전지소재분석응용마이크로디그리	이차전지융합전공 15학점 (이차전지소재분석응용 필수 과목 9학점 이수 포함)	
22		이차전지제조공정응용마이크로디그리	이차전지융합전공 15학점 (이차전지제조공정응용 필수 과목 9학점 이수 포함)	
23		이차전지자원순환응용마이크로디그리	이차전지융합전공 15학점 (이차전지자원순환응용 필수 과목 9학점 이수 포함)	
24		이차전지시스템안전응용마이크로디그리	이차전지융합전공 15학점 (이차전지시스템안전응용 필수 과목 9학점 이수 포함)	
25		이차전지소재분석심화마이크로디그리	이차전지융합전공 15학점 (이차전지소재분석심화 필수 과목 9학점 이수 포함)	
26		이차전지제조평가심화마이크로디그리	이차전지융합전공 15학점 (이차전지제조평가심화 필수 과목 9학점 이수 포함)	
27		이차전지공정분석심화마이크로디그리	이차전지융합전공 15학점 (이차전지공정분석심화 필수 과목 9학점 이수 포함)	
28		이차전지안전진단심화마이크로디그리	이차전지융합전공 15학점 (이차전지안전진단심화 필수 과목 9학점 이수 포함)	
29		이차전지안전자원순환심화마이크로디그리	이차전지융합전공 15학점 (이차전지안전자원순환심화 필수 과목 9학점 이수 포함)	
30		미래모빌리티전공	미래모빌리티전공마이크로디그리	미래모빌리티전공 12학점
31		해양미래산업전공	해양미래산업전공마이크로디그리	해양미래산업전공 12학점(전공필수 3학점 포함)
32		AI혁신전공	AI혁신전공마이크로디그리	AI혁신전공 12학점
33		DX융합전공	디지털인문학마이크로디그리	DX융합전공 15학점
34		산업공학과	빅데이터융합마이크로디그리	15학점(전공필수 3학점 포함) 학과 전공 과목 중 지정교과목(6학점) + AI융합 공통교과목* (9학점)
35	산업공학과	산업AI융합마이크로디그리	15학점(전공필수 3학점 포함) 학과 전공 과목 중 지정교과목(9학점) + AI융합 공통교과목* (6학점)	

* AI융합교육원에서 개설하는 AI관련 교과목(일반선택학점 인정)

트랙은 학과(부)나 전공에서 트랙 이수과정을 설계하여 구성하며, 트랙별로 정해진 이수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 부산대학교 학생지원시스템(<https://onestop.pusan.ac.kr>) - 학적 - 전공지원신청안내 - 소단위전공 - 트랙 메뉴에서 세부 정보 확인 가능

2026. 2. 1. 기준

학과(부) 전공	명칭	이수학점
미래에너지전공	이차전지트랙	미래에너지전공 이차전지 트랙 교과목 중 24학점 (EES융합전공, 이차전지융합전공 인정교과목 포함)
전기전자공학부 전기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반도체전공트랙	24학점 (트랙 전공기초 12학점 이상/트랙 전공심화 9학점 이상/트랙 융합 3학점 이상) + 산학프로젝트 수행 또는 참여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인턴십 수행
광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AI스마트헬스케어전공트랙	광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AI스마트헬스케어전공트랙 교과목 중 24학점
나노소자첨단제조전공	반도체공정전공트랙	나노소자첨단제조전공 반도체공정 전공트랙 교과목 중 36학점
행정학과	DMS(행정관리과학)융합트랙	21학점 학과전공과목(12~15학점) + AI융합 공통교과목*(6~9학점)
정치외교학과	정치데이터사이언스융합트랙	21학점 학과전공과목(12~15학점) + AI융합 공통교과목*(6~9학점)
사회복지학과	데이터사이언스와복지융합트랙	21학점 학과전공과목(15학점) + AI융합 공통교과목*(6학점)
사회학과	소셜데이터사이언스융합트랙	21학점 학과전공과목(15학점) + AI융합 공통교과목*(6학점)
심리학과	심리데이터사이언스융합트랙	21학점 학과전공과목(15학점) + AI융합 공통교과목*(6학점)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데이터분석융합트랙	21학점 학과전공과목(12~15학점) + AI융합 공통교과목*(6~9학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미디어데이터사이언스융합트랙	21학점 학과전공과목(15학점) + AI융합 공통교과목*(6학점)
산업공학과	산업AI융합트랙	21학점 학과전공과목(15학점) + AI융합 공통교과목*(6학점)
공공정책학부	공공데이터분석융합트랙	21학점 학과전공과목(15학점) + AI융합 공통교과목*(6학점)
의류학과	디지털패션융합트랙	21학점 학과전공과목(12학점) + AI융합 공통교과목*(9학점)

학과(부) 전공	명칭	이수학점
스포츠학과	AI스포츠과학융합트랙	21학점 학과전공과목(15학점) + AI융합 공통교과목*(6학점)
디자인엔터테인먼트디자인전공	디자인컴퓨팅융합트랙	21학점 학과전공과목(15학점) + AI융합 공통교과목*(6학점)
의생명공학전공	바이오메디컬디바이스&데이터 융합트랙	21학점 학과전공과목(12~15학점) + AI융합 공통교과목*(6~9학점)
조경학과	도시·환경·생태데이터분석융합트랙	21학점 학과전공과목(15학점) + AI융합 공통교과목*(6학점)
광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반도체공정전공트랙	광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반도체공정전공트랙 교과목 중 24학점 이상
미래에너지전공	에너지생산전공트랙	미래에너지전공 에너지생산전공트랙 교과목 중 24학점 이상(EES융합 전공 교과목 포함)
미래에너지전공	첨단응용소재전공트랙	미래에너지전공 첨단응용소재전공트랙 교과목 중 24학점 이상

* AI융합교육원에서 개설하는 AI관련 교과목(일반선택학점 인정)



함께 만드는 융합교육, 지금 참여하세요!

부산대학교 융합교육의 다음 모델을 함께 설계할 **연구팀·협력기관·산업체 파트너**를 모집합니다.
교육을 '운영'하는 것을 넘어, 교과목·프로그램·전공 모델을 공동 개발하고
성과를 확산할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모집 분야

- 3LAYER-BPF 융합교육 교과목 개발 연구팀 참여자 모집
- ABC 융합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 개발 연구팀 모집
- 다중(연계·융합)전공 개발·확산 연구팀 참여자 모집

매거진 **생생** 후기도 모집합니다
매거진 2호 발간 수록

함께할 파트너도 환영합니다

- ✓ 산학연 연구팀 콜라보(공동 과제 발굴·운영·성과 확산)에 관심 있는 분
- ✓ 산학융합교육·창업교육 MOU 체결 및 현장 프로젝트 연계를 희망하는 산업체
- ✓ 매거진 참여, 융합교육 성과 공유, 네트워킹 등 융합교육 발전에 관심 있는 모든 분

참여 방법

아래 홈페이지 게시판에 참여 의사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https://con.pusan.ac.kr>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협력이 교육을 바꾸고, 지역을 움직입니다.”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